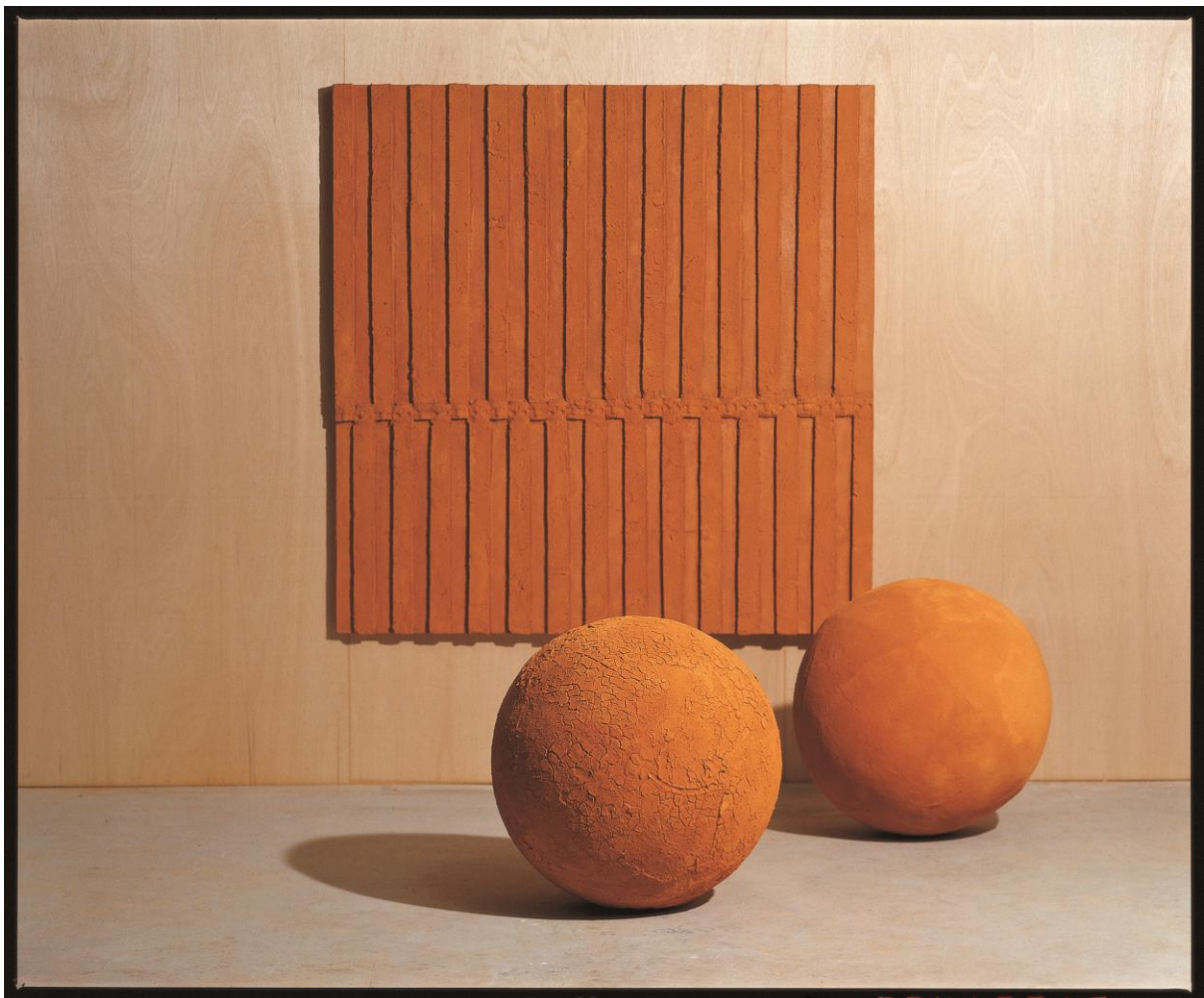


불의 미술사 - 김정범

창작의 기본 조건으로서의 작업실

1990년 3월 출국하여 1995년 프랑스 파리에서 유학을 마치고 귀국한 김정범은 도예를 전공했지만, 딱히 도예라기보다는 흙을 가지고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다. 프랑스에 체류할 당시 소나무 회를 통해서 2002년까지 <메종 데 아티스트>라고 하는 일종의 미술가 협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의료보험이나 주택을 보조 받는 혜택을 받았었다. 예술가의 사회적 역할을 장려하고 예술가들의 창작환경을 지원하는 프랑스의 문화복지 환경은 세계 어떤 나라에서도 그 유례를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체계적이다. 귀국 후, 김정범은 프랑스의 창작환경을 부러워하며 한국적 현실에 적응해야만 했다. 한국에서 도예가를 응용미술가로 보는 시각이 그래서 문예진흥기금을 지원해 분다던지, 여러 예술지원 프로그램의 지원혜택을 전혀 받아 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다 그가 일산에 정착해서 지금의 작업실을 갖게 된 것도 몇 년 되지 않았다 자기만의 작업실에서 기능 좋은 가마에 불을 집힐 수 있지 않고서 오랜 시간의 변화에 면밀하게 대처하는 잘 해내기는 쉽지 않다.



미국의 아키 브레이 파운데이션(Archie Bray Foundation : <http://www.archiebray.org>)

김정범은 1997년 미국의 아키 브레이 파운데이션의 초청으로 3개월간 체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재단은 1951년 당시 벽돌 공장의 사장이었던 아키 브레이(Archie Bray)에 의해서 건립된 도자공예지원재단이다. 이 재단은 응용예술로서의 도자공예를 넘어 중요한 예술표현 재료로서 도자기를 활용하고 순수예술에서 다루는 조각이나 설치의 경계를 자유롭게 넘나들면서 작업하는 작가들을 지원하고 있다. 레지던시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세계 각지에서 실험적으로 작업하는 작가들을 초청해 세미나도 하고 신진작가들을 발굴해 시상도 한다. 김정범은 이러한 국제적인 기구들과 지속적인 연관관계를 유지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번 이천 도자기 비엔날레에도 관계자들을 초청해 조언을 듣고 우리의 도자기 예술이 처해 있는 현실을 알리는 계기가 되었다. 그는 EH 한 도예가들이 많이 주거하고 있는 일산지역에도 아키 브레이에 버금가는 도예가 지원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도예가들의 창작을 돕고 국제적인 교류도 진행할 수 있기를 바라고 있다.



흙처럼 변해가기

김정범은 한 가지 형태의 예술, 혹은 특정 장르개념에 귀속된 작가로 남기를 거부한다. 그래서인지 최근 그의 작업은 회화에 가깝다. 벽면에 걸려있는 평면작업에는 붉은 흙이 그 고운 빛깔을 드러내며 작업실에 드리워진 햇살을 받아들이고 있었다. 다른 작가들에 비해 도예가들은 생활형편이 좀 나은 편이다. 실험적인 작품들은 판매가 잘 안되지만, 도자기나 그릇을 빚어 생계에 보탬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판매에 치우치다보면 장르체계에 갇히게 되고

다양한 실험을 등한시 하게 될 까봐 김정범은 더 다양한 상상력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재료를 다양하게 사용해 보고 싶어요. 영상이나 조각에서 사용하는 소재들을 도입해서 실험하고 싶어요.”라고 말하는 작가는 흙이라는 소재에 사로잡혀 도예계가 표류하고 있다고 덧붙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정범은 흙에 대해 깊이 빠져 있는 사람 같았다. 김정범은 테라코타 작업을 주로 하는데, 인형이나 장난감 같은 것에 흙을 입혀 붉은 색을 띄는 오브제로 변화시키거나 흙을 가마에 구워 흙가루를 안료로 사용해 작업을 한다. 흙은 가마에서 온도에 따라 색이 달라진다. “흙처럼 사람이 맘대로 할 수 없는 물질도 드물 겁니다. 예술가가 다룰 수 있는 것은 흙이 가마에 들어가기 전 까지입니다. 가마에 들어가면 내가 예측했던 대로 결과를 받아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추측하건데, 그래서 일정한 온도로 불을 집히는 것이 중요하고 옛 선조들은 가마 앞에서 거의 불을 숭양하는 신도가 되었던 것 같았다.

다양한 사람들과의 만남

김정범이 일산에 거주하면서 얻은 소득 중에 하나는 다양한 예술가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이었다. 그는 창작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작업하나로 승부하려는 작가들을 만나면 서로 힘을 얻고 자신도 더욱 작업에 매질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작업하는 사람들은 서로 작업에 대해 욕심을 내거든요. 이런 분위기가 서로에게 자극을 주는 거 같아요.”라고 말하는 작가는 일산의 오픈 스튜디오를 제안하고 조직했던 초기 멤버 중 하나다. 처음에는 작가들 상호간에 왕래가 없고 단절되어 있는 것을 탈피하고 작가 네트워킹을 구성해 보자는 차원에서 시작이 되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대화동의 시의원이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해주고 공공기관의 지원보다 작가들과 친분이 있는 사람들이 지역사회에서 후원을 하고 있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그는 또한 병원이나 일산에 거주하는 분들이 오픈 스튜디오를 방문하고 10 만원 20 만원 후원을 해주는 것을 통해 작가들은 힘을 얻는다고 했다. 올해 처음으로 경기문화재단의 지원도 받게 되어 앞으로 좀 더 체계화된 행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그는 기대하고 있다. 작가의 스튜디오가 오픈 되면서 찾아오는 관람객들을 위해 작가의 작업을 소개하는 교육프로그램도 필요해 몇몇 작가들이 주축이 되어 <작가의 작업을 따라해 보기> 프로그램을 진행해 보았는데, 상당히 효과가 있었다고 한다. 최근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들이 문화예술을 매개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만, 예술이 빠져 있는 아동 교육 프로그램으로 전락하기 십상이다. 일산의 프로그램은 철저히 작가들의 작업방식과 작업실에서 사용하는 도구 등을 바탕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작가의 고민을 알 수 있고 작가의 작업을 깊이 이해 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해 준다. 여기서 더 나아가면 애호가도 생겨나고 구매자도 생겨날 수 있을 것이다.



도예를 통한 국제교류

김정범은 중국의 도예산업이 확대되면서 우리나라 도예산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말한다. 그는 국내 도예업계가 예술적인 요소들을 배제한 채 지나치게 대량생산이나 상업적인 형태로 끌고 갔기 때문에 생겨나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천 도자기 비엔날레도 관람객 200 만 명 돌파라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지만, 예술성이 결여된 정치적인 문화행사로 진락하고 있다. 도자기 산업 인프라가 개선되어야 실질적인 변화가 가능할 수 있다고 그는 덧붙인다. 김정범이 미국에서

경험했던 것처럼, 일반인들과 거리를 좁히고 예술적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풍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또한 그는 김해에서 외국작가 10 명과 국내 작가 3 명이 참여해서 건축과 도예가 같이 결합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2007 년에 영국에서 시작해서 우리나라 김해와 교류할 예정인데, 이와 같은 실험을 도예를 건축공간 안에서 재조명하는 역할과 도예와 건축을 바라보는 동양적인 혹은 서양적인 관점들이 서로 교류되는 만남의 장이 될 것이다.

-백기영(미술비평, 전시기획)